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반영한다고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손, 눈, 손가락 그리고 귀에 대한 불신은 이미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감각의 과정 안에서 이들은 착각한다. 반복적으로 접한 정보들과 편집된 기억들에 의해 감각 기관들은 기대된 지각, 때때로 왜곡된 결과를 포장한 지각으로 그 소유자를 현혹시킨다. 그 현혹의 이력을 많이 노출했음에도 일상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존재가 눈이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찰나, 눈이 전달하는 정보에 완전히 의존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눈은 '무엇'인 것처럼 보이는 표면을 보고 '그럴듯한' 것을 전달한다. 눈을 통한 그럴 듯한 외부세계는 한때 그 자체로 예술가의 관찰대상이 되었으며 재현의 대상이 되었고 영감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지' 그럴듯한 것을 있는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이들은 보이는 그대로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해 내려는 시도를 한다.

끊임없이 어떤 사물에 다다르는 기존의 방법을 해체, 재조합시켜 또 다른 그럴듯한 사물을 퀘어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지 않고 따라서 변함없이 그럴듯한 것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풍경-퀘어내기'展 에서 김인영, 이지현, 최경화 각자가 만들어 낸 풍경은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형성된 개인적 개념의 풍경이다. 여기서 작가의 가정적인 사물을 위한 공통된 대상으로서 풍경은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풍경은 무정형이다. 풍경은 자연의 주관화를 요구한다. 풍경은 항상 그것의 요소들을 선택하고, 강조하며, 분류하는데 있어서 눈에 엄청난 자유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다양성을 포함하며, 또한 제안과 막연한 정서적인 자극에서 훨씬 더 풍부하다.

어쩌면 이것은 혼란스러움이다. 하지만 작가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더미에서 주의를 끈 관심의 요소를 차례차례 고집어내어 줄을 세운다. 이것들을 작가의 조형언어로 퀘어내면 같지 않은 경로, 같지 않은 조합의 독자적 풍경을 위한 가정적인 사물이 탄생한다.

김인영은 시각의 본질-인간의 사고-기억과 경험-작품에서 얻어지는 환영-관객의 해독 사이의 퀘어내기를 시도하며 **데이터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김인영이 퀘어낸 풍경에 실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험의 데이터들이 모여 만들어진 가상의 풍경만이 있을 뿐이다. 작가는 어디서 본 듯한, 무엇과 비슷한 화면 안에서 발견적인 방법으로 자연요소들을 찾게끔 한다. 그림은 해독되는 것이기에 눈으로 보여 지는 사물의 모습과 작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석적 계산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이지현은 추상적인 자아의 상태-그리기의 자폐적인 습성을 통한 발산 표현-그리기와 자아의 동일화-주변 풍경에서의 연결고리 없는 이미지 따오기로 **신체와 혼합된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지현의 신체와 혼합된 풍경은 주로 갈등의 상태가 고조된 상황을 드러내는데, 몸의 촉각적인 고통의 상태를 풍경과 퀘어낸다. 추상적인 자아의 상태는 그리기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적 결과물-풍경-로 전환된다. 관객은 가상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바라보거나 신체를 인식하게 되는 한 사람의 사고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최경화는 작품에서 시선의 움직임-잔상 이미지-거리감의 표현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자 하며 그것은 **감각의 과정으로서의 접촉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화의 풍경은 실재하는 대상과 마주하는 눈이 관계하는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그것은 감각 속에서 짜여 지고 구성되는 실제이다. 그는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남게 되는 잔상 이미지를 통하여 지각적, 정서적 거리감을 표현하고자 하며 그것의 결과는 감각의 과정으로서의 체험적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풍경과 관련해 서로 다른 가정적인 사슬을 꿰어내는 세 작가의 관점을 다루는 이번 '풍경-꿰어내기'展에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층위는 바로 '관객의 꿰어내기'에 대한 것이다. 현실과 작품을 작가가 매개하는 영역에서의 꿰어내기와 현실과 관객을 작품이 매개하는 영역에서의 꿰어내기가 서로에게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모색해 보는 것에서 이 전시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